

전남 동부권 물폭탄 피해 속출

광양 464mm 폭우…농경지 6900ha 침수·곳곳 산사태 3명 사망

주말을 전후해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豪우로 전남에서만 3명이 사망하고 농경지 6900㏊와 주택 44채가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다. <관련기사 6면>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 일사이 전남지역에 내린 시·군별 강수량(10일 오후 4시 기준)은 광양 464.9mm를 최고로 순천 408.8mm, 구례 334.3mm, 보성 273.5mm, 고흥 230.3mm 등 도내 평균 174.3mm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비는 백운산에만 521mm가 내린 것을 비롯해 여천공단 394mm, 지리산 성삼재 345.5mm, 고흥읍 321mm, 벌교읍 313mm 등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특정지역에 '물폭탄'을 쏟아붓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특징이었다.

이로 인해 10일 오전에는 보성군 회천면의 한 암자 인근에서 산사태로 문모(91)·마모(86) 할머니가 헤어내린 토사에 묻혀 숨지는 등 3명이 사망했고 주택 44채가 침수되거나 무너져 28세대 5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산피해도 잇따라 6893㏊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44.2㏊의 비닐하우스가 침수됐다. 농경지 침수 피해는 고흥이 3252㏊로 가장 커으며 순천 2144㏊, 여수 802㏊, 광양 520㏊ 등을 기록했다. 순천과 광양에서는 각각 24㏊와 20.2㏊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오이·고추·토마토·수박·호박 등이 피해를 입었다.

순천·고흥·보성·장흥 등지에서는 도로 18곳에 토사와 물이 넘쳐 응급 복구했으며 순천 일대산단과 광양에서는 5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일선 시·군 공무원 2762명과 비상 근무에 나선 전남도는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 144세트를 즉시 지원하고 래프팅 대회 등 일부 행사를 취소하고 참가자들을 철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여수·광양·순천지역 배수펌프장 20곳을 동시에 가동하고 지리산과 월출산 등 국립공원 2곳의 출입도 통제했다.

수자원공사도 10일 오전 주암댐 물이 한때 홍수 제한 수위(108.5m)에 근접한 106.3m를 기록하자 300t의 물을 급급 방류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마다 11일 까지 20~7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농작물 훈후피해 최소화를 위해 배수로 정비 후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병해충 방제 등 작물관리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0일 고흥군 남양면 망주리 망주초등학교 인근 도로가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비스킷처럼 부서졌다. 고흥군에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23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고흥=나명주기자 mhma@kwangju.co.kr

김효석 의원 수도권 출마 선언

"민주당 변화 끌어내 내년 총선 선봉 서겠다"

김효석 민주당 국회의원(담양·곡성·구례)이 10일 내년 19대 총선에서 수도권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3선인 김 의원의 수도권 출마 선언에 따라 내년 총선은 앞두고 호남·충진 등을 중심으로 한 '협역 국회의원 물갈이론'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김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3선 의원으로 성장시켜준 지역 대표를 만나 수도권 출마 결심을 전

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뉴 민주당 플랜을 만들려 낸 당사자로서 내년 총선에서 중도를 기치로 중원 싸움의 선봉에 서겠다"며 "총선 승리의 이끌고 정권 교체의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 밤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만나 수도권 출마 결심을 전

했으며 민주당은 김 의원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장을 나타냈다.

중앙대 교수 출신인 김 의원은 2000년 새천년민주당 당시 영입 캐이스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으며 정책위원장, 원내대표 등을 역임하며 당내 대표적 경제통이자 합리적 온건파로 평가받아왔다.

김 의원의 수도권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광주·전남 지역에서부터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현역 국회의원

■ 광주·전남 시·군별 강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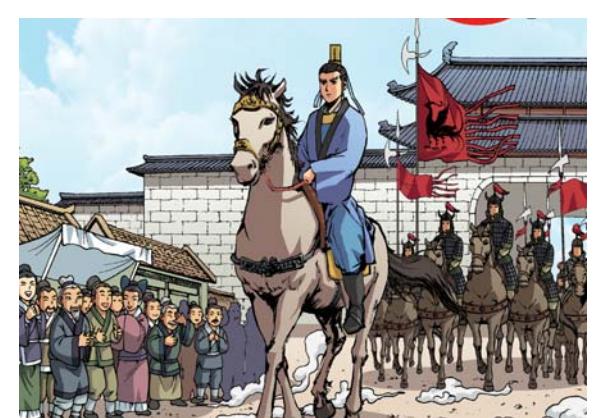
10일 16시 현재(단위:mm)

시군	누계 (8~10일)	시군	누계 (8~10일)
광주	77.7	화순	141.0
목포	86.5	장흥	162.5
여수	104.0	강진	203.5
순천	408.8	해남	128.9
나주	85.0	영암	98.0
광양	464.9	무안	126.6
(백운산)	521.0	함평	172.6
담양	129.0	영광	68.3
곡성	141.0	장성	185.6
구례	334.3	완도	103.0
고흥	230.3	진도	80.7
보성	273.5	신안	105.6

알림

광주일보 만화 학습지 '즐거운 漢字'

고구려 '대무신왕편' 발행



지난 4일 첫 호…매주 월요일 무료 배달

매주 월요일 독자여러분을 찾아가는 무료 만화 학습지 '즐거운 漢字'가 지난 4일 고구려 대무신왕편 첫 호가 발행된 후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즐거운 漢字'는 지난 2009년 3월 16일 '만화 한국사'편을 발행해 지난 5월 28일 총복습호까지 104호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후 이번에 제2탄 고구려 대무신왕편을 발행하게 됐습니다.

고구려 3대왕인 대무신왕 무술은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의 업적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여와 낙랑을 정복하고 한나라의 침략에 맞서 싸우며 고구려를 강국으로 기운 한민족의 영웅입니다.

'즐거운 漢字' 대무신왕편은 대능교육이 제작한 수준높은 을 칼려 만화로 역사 판타지와 함께 초·중학생이 쉽게 한자를 익힐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光州日報社

금호고속 새 노조 총파업 강행

대체인력 버스 정상운행

민주노총 소속 금호고속 새 노조가 9일 총파업을 강행했다. 복수노조 허용 이후 첫 파업이다. 이에 따라 새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단체협상을 제안했던 사측과 기존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대응이 주목된다.

10일 금호고속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는 지난 9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새 노조는 또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입구와 유스퀘어 맞은 편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와 결의대회를 열었다.

새 노조의 파업으로 우려했던 버스 운행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측은 "휴무 중인 승무사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모든 노선이 정상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7일 새 노조가 요구한 단체협상을 받아들여 오는 12일 실무자회의를 제안한 상태다. 기존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자동차노조연맹 금호고속지부는 오는 12일 새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입장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호고속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사(勞使)-노노(勞勞) 관계의 혼란이 표출되는 전국 첫 사업장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우울증"의 한방치료!

누구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와 상실을 경험하게 되며, 그 결과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에 젖게 된다.

여기서 우울이란 슬프고 침울한 마음으로 인하여 모든 생리 기능이 침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잠시 시간이 지나면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좌절 경험에 일시적으로 경미한 우울 기분을 느끼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며 또한 자연스러운 일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울한 상태에서 쉽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때

로는 점차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울한 기분이 정체되어 발산하지 못해 일어나는 증상을 총칭하여 우울증이라 합니다.

우울증은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빠져들 수 있는 "인생의 높"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음의 감기"라고 할 만큼 누구나 인생의 시련기에 경험하게 되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사실과 같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정신장애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치료

치료원칙은 우울증의 병리기전에 의거하여 물결한 氣를 순조롭게 순환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화·담·적의 경증에 따라서 火를 끌어내린다든지 痰 또는 積을 없앤다든지 하는 방법을 배합한다.

한약처방으로는 소간해울탕, 귀비탕, 온담탕, 보혈안신탕, 조위승청탕, 소요산 등이 많이 활용된다. 침치료는 울체된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치료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경희 한의원> 전 선 형 원장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0531-중-359호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 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 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치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침구과

진료
과목
안내

• 핫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ALLERY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짐증력 저하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완비 * 건물 옆 패밀리 렌터카 *

경희한의원